

討하도록 政府에 대한 壓力이 加重되었으며 간디首相도 外務 및 國防 兩長官에게 이 記事에 引用된 Khan博士의 發言에 따라 파키스탄의 原子力 現況을 再把握하도록 指示하였다.

觀測通에서는 印度와 파키스탄間的 最近의 國境線에서의 緊張高潮와, 파키스탄의 核武器開發計劃과 이로 因해 加重되고 있는 간디首相에 대한 政治的인 壓力 때문에 兩國間에 相互間 原子力施設을 攻擊하지 않기로 하는 協定의 調印이 가까운 將來에 이루어질 可能性은 더 稀薄해

졌다고 말하고 있다. 兩國間的 關係가 매우 惡化됨에 따라 간디首相은 좀 더 強硬路線을 取하도록 國內에서 壓力을 받고 있다. 昨年에 이 스라마바드를 訪問하여 原子力施設에 대한 不可侵條約에 進展이 있었음을 報告한 바 있는 Venkateshwaran外務長官이 지난 1월 간디首相에 의해 突然 解任된 理由도 그의 파키스탄에 대한 有和政策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觀測通에서는 보고 있다.

IAEA

原子力發電의 復活을 確信 체르노빌事故影響의 實狀이 밝혀져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Hans Blix 事務總長은 지난 2月26日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에 너지會議에서의 강연을 통해서 「거의 일년 가가운 分析과 데이터 수집의 결과 체르노빌事故의 規模와 保健 및 環境에 미치는 影響의 實狀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lix事務總長은 事故를 둘러싼 初期의 一般大衆의 걱정과 혼란을 現在의 狀況과 비교하면서 「체르노빌事故에 의한 保健 및 環境影響의 結果는 심각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강조하고 國際原子力機構와 世界保健機構(WHO) 共同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럽國家들이 報告한 資料를 토대로 하면 「蘇聯 以外的 國家에서 체르노빌事故로 인해서 받는 保健上의 影響은 測定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認知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結論은 初期의 豫測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初期豫測이 事故直後 不必要한 公衆의 근심 걱정을 야기시킨 國家的인 反應, 과

장된 마스크의 보도, 放射能落塵패턴의 放射能 放出 등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Blix事務總長은 「原子力發電의 現實에 대한 인식이 增大되고 있다」고 하면서 一般大衆이 체르노빌事故의 진상을 올바르게 보기 시작하였으므로 原子力發電에 대한 公衆의 견해도 부정적인 경향에서 正적으로 轉換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Blix박사는 「初期에 마스크만 만들어 놓은 체르노빌事故의 이미지를 精確한 實狀으로 바꾸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精確하고 권위있는 充分한 事故情報은 이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고 불안을 없애준다」고 하면서 「더우기 原子力安全分野에서 새로운 이니시에티브가 추진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Blix박사는 「經濟的, 環境保全的 이유에서 原子力發電에 대한 需要가 부활될 것으로 確信한다」고 강조하면서 西유럽 國家들의 總發電量中 原子力發電에 의한 電力이 30%를 占하고 있으며, 이것이 電氣料金の 安定과 環境汚染防止의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補修維持와 原子力發電 開發의 高度化는 이들 國家의 經濟競爭力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今年末 原子力設備 400基·3億kW 昨年 25基·2300萬kW가 運轉開始

작년 1년간에 운전을 개시한 원자력발전소는 25基, 2295萬 5000kW로서 전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총 376기. 총출력 2억 7697만 5000kW에 달했다. 원자력발전설비는 과거 2년간 2500만kW를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중의 것이 1억 5000만kW 가까이 되므로 금년말에는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설비는 400기, 3억kW나 될 것이 확실하다.

신규로 운전개시한 발전소는 미국이 6기, 731만 1000kW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프랑스, 영국, 체코슬로바키아가 각 3기, 우리나라, 캐나다, 소련이 각 2기, 서독, 스페인, 헝가리, 인도가 1기로 되어 있다.

주요나라들의 동향을 보면, 먼저 미국의 설비용량이 8660만kW로 8천만kW를 넘어섰다. 또

이번에 運轉開始한 6기는 모두 110~130만kW급의 대형발전소였다.

프랑스는 130만kW급의 標準化PWR 3기가 운전을 개시하여 45기, 4214萬kW로 여전히 세계 제 2위의 설비를 가지고 있다. 대형설비의 運轉開始와 好調의 원자력 가동으로 전체 발전전력량의 69.8%로 거의 7할에 달했다.

소련에서 운전개시한 것은 PWR와 BWR이다. 작년 4월의 체르노빌사고에 의해서 계획중인 PBMK型爐(체널型黑鉛減速輕水冷却爐)는 건설이 취소되었다. PBMK型爐의 앞으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次期 5개년 계획에서 검토된다.

제 3위의 설비를 가진 일본은 새로이 운전을 개시한 발전소는 없었으며,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은 北陸電力의 能登 1호기와 中部電力의 浜岡 4호기의 2기. 금년 2월에는 日本原子力發電의 敦賀 2호기가 運轉開始하여 2월말 시점에서 설비는 34기, 2584만 6천kW가 되었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2기가 운전개시하여 설비는 6기, 477만kW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은 전년의 28.9%에서 43.8%로 4割臺가 되었다.

대 만

臺灣電力, 在美 우라늄개발 투자 鑛脈발견

석탄과 우라늄 등 鑛物探查 및 開發을 하는 회사인 美國의 Rocky Mount Energy Co. (落磯山能源公司)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同회사는 臺灣電力公司와의 合作投資 事業이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최근에 이미 우라늄광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한 同 合作事業으로 美國 地質학자들에 의해 發見된 이 우라늄광에 대해서는 더 많은 鑛孔探查를 통해서 埋藏量과 質에 대한 評價를 한 다음 採鑛 如否를 決定 하겠다고 밝히고, 現在의 進展狀態에 관해서는

매우 기쁘고 고무적이며 展望이 극히 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우라늄광맥의 발견처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대만電力은 1986년 7월 와싱턴에서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Rocky Mount, Energy Co.와 우라늄의 合作投資開發 協定을 체결하였던 바 금년 1월 1일을 기해 동계약이 발효된 것이며, 대만전력은 동계약에 따라 우라늄개발 5개년계획 아래 총투자액 1800만달러 중 600만달러를 투자하고 合作투자계획에 따른 生産品의 全部에